

이효석 단편소설 「돈(豚)」에 나타나는 동물상징 The Animal symbol in Lee Hyo-seok's short story <Pig>

정문권

배재대학교 한국어문학과

Moun-Kwon Jeong(moun@pcu.ac.kr)

요약

이 연구는 이효석 단편소설 「돈(豚)」에 나타나는 동물상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발현되는 작가의식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효석은 문학적 전환을 꾀하였다고 평가받는 1933년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동물상징을 사용하였다. 그의 소설에서 동물상징은 비유적 소재를 넘어서 작품의 주제 의식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표상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물상징의 활용에는 작가의 뚜렷한 의도가 숨어있다. 이효석의 순수문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돈(豚)」에는 돼지가 주요 상징물로 사용된다. 작품 속에서 돼지는 가난한 농민의 자본으로 상징되며, 동시에 주인공에게 욕망을 일으키는 기폭제로 작용한다. 또한 소설의 결말에 나타나는 돼지의 죽음은 자본의 증식도, 욕망의 실현도 꿈꿀 수 없는 당대 농민의 비참한 현실을 내재하는 상징물로 기능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豚)」은 표면적으로는 순수문학적 성격을 보이면서도 내재적으로 비참한 농민의 현실을 고발하는 작가의식이 담긴 작품이다. 즉, 「돈(豚)」은 리얼과 낭만의 중간적 입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동물상징'이라는 이효석만의 소설작법이 구현된 작품인 것이다.

■ 중심어 : | 동물상징 | 이효석 | 돈(豚) | 작가의식 | 낭만과 리얼의 중간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animal symbolism shown in the novella <Pig> by Hyoseok Lee and seeks to shed light on the consciousness of the author expressed through such symbolism. Lee used animal symbolism since 1933 which was a literary turning point for him. Animal symbolism in his novels are more than an analogical theme but is used as a core meaning and image. This has a clear intention of the author underneath. Novella <Pig> which is seen as the starting point of pure literature for Lee, uses the animal pig as a key symbol. The pig serves as a symbol of the capital for poor farmers, while also serving as an amplifier for the desires of the protagonist. The death of the pig that appears at the closing of the novella stands for the tragic reality of the farmers of the time who could not seek growth in their capital or realization of their desires. As such, <Pig> has characteristics of pure literature but also represents the consciousness of the author who brings attention to the tragic reality of farmers. That is, <Pig> is a work that realized the unique writing style of Lee and his animal symbolism to bring to life a middle way approach to realism and romanticism.

■ keyword : | Animal Symbolism | Hyo-seok Lee | Pig | Consciousness of the Author | Middle way Between Realism and Romanticism |

1. 들어가기

흔히 ‘인간은 상징의 동물’이라고 말한다[1]. 이는 대상에 대해 연상하고 암시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상징은 그동안 문학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왔다. 한국문학에서 동물상징은 「단군신화」, 「구지가」, 「황조가」 등의 고대문학뿐만 아니라 시조나 한시, 사설시조와 같은 운문문학, 「서옥설」, 「장끼전」, 「별주부전」 등의 산문문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화기문학, 현대문학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물상징은 동물에 대한 경험론적인 관찰과 인식, 그리고 반응 등이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다시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문학적으로 발현된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인간들의 다양한 삶의 양태를 형상화하는 예술인 문학에서 동물상징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 문학사에서 ‘동물상징’이 함유하고 있는 가치와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상징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실정이다. 한국에서 동물상징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경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줄고인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동물상징 연구」는 주제론적인 관점에서 동물상징을 밝혀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동물상징의 유형을 길흥의 전통적 관념, 성적 표현의 매개체, 계급 투쟁의 매개체, 인간과 동물의 상호 교체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동물상징 연구의 기초적 작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2].

이외에 동물상징 관련 연구로는 이재선과 이수정의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 이재선은 「동물의 문학적 상징 - 문학의 동물관」을 통하여 개, 닭, 까치, 학 등의 동물들이 문학 작품 속에서 형상화되어 있는 모습을 밝히고, 이를 통해 우리 문학사에 나타나는 동물관을 밝히고 있다[3]. 그리고 이수정은 「현대소설과 동물의 주제학」을 통해 동물상징을 동물적 도상과 반어성, 인간 친화적 동물과의 일치화, 이념적 대리자로서의 동물, 분

열과 도착의 우화적 체계의 네 가지 양상으로 구분하고, 동물상징이 같은 근대의 시공간 속에서도 문학적 경향이나 작가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의미로 활용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4].

이 글은 기존 연구를 수렴하여 동물상징이 작가의 문학적 경향이나 특성을 발현하는 문학적 기교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소설의 기법은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는 내적인 요구에 의해 선택된다. 또한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결정된다[5]. 이러한 점을 이해하면,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의 상징적 의미는 단순한 의미를 함유한 부수적이고 우연한 소재물이 아니라, 작가의 창조적이고 예술적 행위와 의도를 담고 있는 기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동물상징을 주로 활용한 작가인 이효석의 작품에 주목하였다. 이효석의 문학 세계는 동반자문학, 자연주의, 심미주의, 에로티시즘, 엑조티시즘, 친일문학 등의 다양한 핵심어를 동원하여 설명해야 할 만큼 진폭이 넓고 복합적인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6]. 그리고 이러한 이효석의 문학에 추가되어야 할 특성이 바로 ‘동물상징’이다. 실제 한국 현대 소설 중에서 이효석의 작품만큼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현대 토테미즘 동물의 도상학’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인간의 세계와 금수의 세계가 긴밀한 접점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3]. 특히 이효석은 문학적 경향의 전환을 꾀했다고 하는 1933년 이후부터 동물상징을 두드러지게 작품에 활용하였다. 이는 이효석이 소설의 주제를 드러내는 기제로 동물상징을 활용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에게 동물상징은 자신의 의도를 반영하는 하나의 소설 기법이었던 것이다.

이효석은 등단 직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도시의 빈부 갈등과 사회적 모순 등을 주제로 한 소설을 발표하였다. 이는 이효석이 현실의 문제를 고발하는, 적극적인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라는 시대적 상황과 모더니스트적인 개인적 기질은 그의 문학적 정체성을 자연주의적 순수 문학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기점에 있는 작품

이 「돈(豚)」이다. 다시 말해 「돈(豚)」은 현실의 문제에 천착하는 동반자적 지식인으로서의 이효석과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주의적 예술가로서의 이효석이 충돌하는 지점에 발표된 작품으로, 이효석의 문학에 나타나는 양가적 특질을 모두 담고 있는 주요 텍스트가인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이효석 문학 연구에서 「돈(豚)」은 인간의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에로티시즘적 성질을 가진 작품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을 뿐[7],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이효석 문학사에서 「돈(豚)」이 가지는 위치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설 내 나타나는 동물상징을 분석함으로써, 이효석 소설에 나타나는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낭만과 리얼의 중간적 기법: 동물 상징

상징(symbol)의 어원은 '조립하다', '짜맞추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심발레인(symbollein)이고, 이 말의 그리스어 명사형은 심볼론(symbolon)은 부호(mark), 증표(token), 기호(sign)이다[8]. 이러한 어원을 살펴보면 상징은 서로 다른 가치들이 인식적 질서 안에서 의미 있게 결합하여 투시되어 있는 일정한 기호임을 알 수 있다. 즉, 상징은 문학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법으로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암시함으로써 구현된다. 이러한 상징의 의미 확장은 폴 리콥르의 견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폴 리콥르는 상징을 제1의 의미와 제2의 의미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제1의 의미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를 의미하는 1차적 의미이며, 제2의 의미는 의미 지향이 이루어진 2차적 의미이다[9]. 이 의미의 결합을 통해 상징은 본연의 의미에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여 추상적인 실재를 표현하게 된다. 즉, 상징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은유가 작동하여, 인식론적 차원을 넘어서 존재론적 차원으로 의미 확장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경험론적 관찰과 인식을 기반으로 대상을 인지한다. 그러므로 상징은 인간의 주변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삼아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대상은

단연 동물이 많았다. 이는 인간의 삶 가장 가까이에 항상 동물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동물은 숭배의 대상이나 사냥의 대상, 가축의 대상으로 늘 인간 가까이에 존재했다. 그렇기에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 작품에서 동물은 다양하게 형상화되고 창조적 의미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문학은 언어를 활용한 예술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상징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그 어떤 예술 장르보다 동물상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효석 소설에 나타나는 동물상징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대의 시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효석의 창작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1930년대는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조선의 병참기지화와 민족말살정책을 강요했던 시기로, 저항적 성격의 문학 활동을 탄압하고 친일문학 활동을 조장했던 때였다. 특히 이 시기에 자행된 카프 동인의 검거는 당대 문인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고, 이에 따라 많은 작가들이 작품 창작의 방법론적 전환을 꾀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카프의 동반자 작가로도 불리던 이효석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효석 역시 이 시기에 자신의 문학의 본령이라 일컬어지는 순수문학으로의 전환을 꾀하였고, 그 문학적 전환의 출발점에 그의 소설 「돈(豚)」이 있다. 「돈(豚)」은 1933년, 『조선문학(朝鮮文學)』 10월호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 소설은 이효석의 문학성이 경향문학에서 순수문학으로 전향되는 출발점에 있는 소설로 「산」, 「들」 등의 작품과 함께 동물상징을 뚜렷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애욕을 충실히 그려내고, 인간과 자연의 동화를 추구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10][11].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이효석의 문학을 표층적으로만 살핀 결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문학적 방법의 전환을 꾀한 이효석이, 천착하고 있던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고 갑자기 자연과의 동화를 노래하는 자연주의 작가가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비논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주의 작가로 전환하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동물상징에 주목하여, 작가의 의도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연주의 소설에 등장하는 동물상징은 소설의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작가의 의도

에 의한 문학적 형상화의 기법으로 봐야하는 것이다.

리얼리즘 문학을 시대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시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사회와 개인의 삶을 그려내는 문학적 사조로 정의할 때, 이효석의 소설을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효석 소설에 나타나는 동물상징의 의미를 당시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면, 리얼리즘 소설에 비견할 만큼의 뚜렷한 사회비판적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효석의 ‘동물상징’은 사회 비판적 소설을 쓸 수 없는 당대의 현실에서 그가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이효석이 발표한 평론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낭만주의 그것에 대한 회의가 최근 새삼스럽게 무럭 자라간다. …(중략)…

그렇다고 리얼리즘이 진실한 문학의 최후의 목적지라고도 생각할 수 없다. 리얼리즘에 대하여서도 같은 정도의 회의를 품고 있다.

궁극의 리얼리즘은 벌써 문학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대체 문학이 모사가 아니고 표현이라야 하는 첫 순간부터 벌써 현연(現然)의 리얼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표현은 소재의 구성이요, 소재의 구성은 주관의 임의의 소위이기 때문이다. 소여(所與)의 소재를 취사선택하고 배열 구성하여 가는 형식과 과정에 이미 작자의 주관의 채색되는 까닭이다. 주관의 채색 — 이것이 벌써 일종 낭만적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문학이란 문학되는 순간부터 낭만적 소설의 운명을 짊 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그러나 의연히 리얼리즘의 길은 존재한다. 그러면 결국 최소한도의 낭만인 동시에 최대한도의 리얼의 파악 — 거기에 문학의 문학다운 소이가 있지 않을까. 즉 훌륭한 표현인 동시에 진실(전체적 급(及) 부분적)에 육박하는 — 그곳에 문학의 참된 길이 있지 않을까[12].

이효석은 1934년 조선일보에서 「낭만·리얼 중간의 길」을 발표함으로써 낭만주의와 리얼리즘 중간의 길에 문학의 참된 길과 진실이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이효석의 생각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

첫째, 문학이 언어 표현을 담보로 하는 예술이라는 점을 직시하면, 이미 실제와 같은 리얼리즘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소설의 소재를 선택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작자의 생각이 소설에 반영이 되고, 그 순간부터 소설은 낭만적 운명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살펴보면, 이효석은 리얼리즘과 낭만주의에 회의를 품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문학은 본질적으로 낭만적 성격과 리얼리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의연히 리얼리즘의 길은 존재”하며, 소설은 “최소한도의 낭만과 동시에 최대한도의 리얼”을 사용하여 진실을 그려낼 때 문학의 참된 길이 있다고 믿는 그의 말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효석 스스로 소설이라는 텍스트가 저자의 시선으로 사회를 그려내는 매개물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생각이 집약된 작품이 바로 「돈(豚)」이다.

「돈(豚)」에서 리얼리즘을 시험하여 보았으나 …(중략)… 요컨대 리얼리즘의 길은 쉽지도 어렵지도 않고도 쉽다. 다만 궁극의 리얼리즘의 길은 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을 뿐이다. …(중략)… 앞으로는 물론 낭만 리얼의 중간의 길과 아울러 순수한 리얼리즘의 길을 더욱 캐보려 하나 「돈(豚)」 이상으로 발전할는지 안 할지는 오직 그때의 나의 ‘성(性)’과 ‘비위’가 결정할 것이다[12].

그동안의 논의에서는 「돈(豚)」을 이효석 순수문학의 출발점으로만 인식하였다. 돼지의 교접을 보며, ‘분위’ 생각을 하는 ‘식이’의 행동을 자연과 인간의 합일, 인간의 애육 등의 관점으로 읽어냈기 때문이다[13]. 하지만 위 예문에서 드러나는 이효석의 주장은 해당 작품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여지를 제공한다.

「돈(豚)」을 다시 읽기 위해서는 이효석이 자신의 작가 의식을 발현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얼과 낭만의 중간적 입장을 구현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돼지라는 동물에 다의적인 의미를 형상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창작 기법은 이효석

이 추구하는 미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진실의 표현을 수단으로 궁극에 있어서는 미의식을 환기시켜 시의 경지에 도달함이 소설의 최고 표지요,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설의 최고 목표를 일률로 진실에만 두는 것은 참된 리얼리스트의 태도가 아니며 예술의 본질의 인식을 스스로 그르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14]. 이는 소설의 서술이 단순히 ‘진실’을 나열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시적 아름다움을 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참으로 훌륭한 표현이라는 것은 짧고 비약적인 함축 있는 언어로 축한 것이며, 이것이 고급의 문장도의 변치 않는 비결이다. 작품이 장황한 것은 대개 묘사가 지리하고 설명이 길고 설화가 수다스럽고 사상과 주제를 반추복습(反芻復習)할 때이다. 한 장 원고지에 담을 내용을 두 장으로 부연함은 작가의 약덕이다. 작가는 교단에 선교사같이 친절해서는 안 된다. 불친절할수록 우수한 작가이며, 한 가지 명제를 되씹고 하는 대신 암시만 하고 띄어만 주는 것이 교사로서도 뛰어난 자질임은 물론이다. …(중략)… 대단치 않은 문장의 어구와 구절은 아끼는 법 없이 냉혹하게 깎아 버리고 배어 버리는 대담성이야말로 절대로 필요한 것이나 이런 줄을 알면서도 실제 창작에 임해서는 실천이 어려워져 자칫하면 장황하고 지루하게 되기가 일쑤다. …(중략)… 대담한 정리와 배제가 필요한 것이다[15].

위의 예문을 통해 이효석의 미의식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에게 시적 아름다움이란 ‘짧고 비약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를 활용한 문장을 사용하여, 두 장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한 장에 담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함축’이다. 함축은 사전적, 지시적 의미를 넘어 해당 문맥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미와 분위기를 창조하는 것으로[8] 언어의 입체적 표현을 통해 외연적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다. 즉 이효석은 소설에서의 미의식을 구현하기 위해 그저 간결한 문체나 표현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소설의 문장이나 구조 속에 어떠한 의미를 담아 의미망의 확대를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이효석의 소설 창작 방법론은 그가 소설에

서의 상징적 매개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상과 같이 이효석의 평론을 근거로 판단하여 볼 때, 「돈(豚)」은 이효석이 “최소한도의 낭만”과 “최대한도의 리얼”의 중간의 길을 생각하며 당대의 현실과 사람들의 욕망, 작가의 의도를 적절히 반영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가 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주요 기법으로 대상의 입체적 표현을 통해 외연적 의미를 확장하는 상징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작품이다. 「돈(豚)」에 등장하는 주된 상징물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돼지이다. 이효석은 돼지로 대표되는 동물상징을 자신만의 독특한 소설 작법으로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III. 동물상징을 활용한 작가의식의 발현

「돈(豚)」에 등장하는 주요 동물의 상징물은 ‘돼지’이다. 우리 문학사에서 돼지만큼 양가적이고 다양한 상징을 갖는 동물은 드물다. 역사적으로 돼지는 재물과 길몽을 뜻하는 동물인 동시에 탐욕과 게으름, 지저분함을 상징하고 있다[16].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돼지는 주로 불순한 욕망을 상징하며, 고급의 세계를 저급의 세계로 변형시키며, 도덕과 무관한 충동을 도덕적 타락의 세계로 변형시키는 상징물로 해석하고 있는데[17], 이 역시 역사적으로 인식되는 돼지의 상징과 무관하지 않다.

이효석의 단편소설 「돈(豚)」에는 이러한 돼지의 양가적 속성이 드러난다. 소설의 주인공인 식이의 욕망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물질적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효석의 단편소설 「돈(豚)」은 주인공인 ‘식이’가 암태지를 길러 종묘장에 가서 씨점을 붙이고 돌아오는 단순한 과정을 그려내는 짧은 소설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돼지는 작중인물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를 가지며 소설의 구조를 직조해 나간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돼지의 1차적 의미는 생물학적으로 기능하지만, 각 구성마다 다의적으로 해석되면서 새로운 2차적 의미를 창조해 낸다. 돼지의 상징은 소설의 기승전결에 따라 자본, 생명력, 욕망, 상실로 구분된다. 이러한 돼지의 상징은 인간의 욕망을 그려낸다

는 집에서 전통적 상징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는 개인적이고도 창조적 상징물로서도 기능한다. 이효석은 이러한 동물상징의 변주를 통해 리얼과 낭만 사이에서 현실의 모순을 그려내려고 했으며, 또한 자신만의 미의식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소설이 발표된 1930년대는 중국과 태평양 지역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수탈이 가장 극심하던 때이다. 소설에서는 당대 농민들의 삶이 피폐하고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세금과 양식에 대한 서술이다.

농가 1년의 생명선……. 줌 있으면 나올 제 1기분 세금과 첫 여름 감자가 나올 때까지의 가족의 양식의 예산의 부담을 맡은 이 어린 짐승 …(중략)… 제 2기분은 새로에 1기분 세금조차 밀려오는 농가의 형편에 돼지보다 나은 부업이 없었다[18].

소설 속 식이는 “단 한 벌의 그의 밥그릇에 물을 받아 먹이기까지 하”며 돼지를 애지중지 키우는데, 그 이유는 그 돼지가 가족이 한 계절을 날 만큼의 세금과 양식을 해결해 주는, 어쩌면 사람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내는 일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이며, 양식은 사람이 살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식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자본을 상징한다. 또한 암돼지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씨집을 시도하는 식이의 행동 역시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그리고 이 씨집에 성공하는 순간 돼지의 상징은 인물의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매개물로 변화한다. 소설 속에서 교미의 장면은 매우 엄숙하다. 종묘장의 떠들썩하던 좌중들도 교미의 순간에는 “일제히 웃음소리를 멈추고” 그 장면에 집중한다. 그리고 그 순간 돼지의 생식 활동은 인간의 생식 활동으로 환원된다.

털 몸을 근실근실 부딪히며 그의 곁을 감돌던 씨들은 미처 식이의 손이 떨어지기도 전에 화차와도 같이 말뚝위를 엄습한다. 씨뺨건 입이 욕심에 목뎌 풀무같이 요

란히 올린다. 깔린 암들은 목이 찢어져라 날카롭게 고향을 친다. 둘러선 좌중은 일제히 웃음소리를 멈추고 일시 농담조차 잊은 듯 하였다.

문득 분이의 자세가 눈앞에 떠오른다. …(중략)…

과장 후의 광경이건만 분이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식이는 몹시도 겸연쩍었다. 잠자코 섰는 까칠한 암돼지와 분이는 자세가 서로 얽혀서 그의 머릿속에 추근하게 떠올랐다. 음란한 잠담과 허리 격는 웃음소리에 얼굴이 더한층 붉어졌다[18].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씨집이 이루어진 장소이다. 돼지가 교미를 하는 장소는 종묘장이다. 종묘장은 감정이 소거된 채, 오직 번식만을 위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렇기에 돼지의 생식 활동이 인간의 생식 활동으로 확장되는 장면은 분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욕망으로 읽힌다. 이는 식이의 상상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교미 중인 돼지의 모습은 식이의 상상 속에서 분이의 모습과 일체화되고, 이것은 다시 분이의 “두 볼을 잘강잘강 씹어 먹고 싶”어하는 식이의 성적 욕망으로 분출된다. 이러한 식이의 모습은 “화차같은 씨뎌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은 다시 육체적 욕망을 넘어서 자식을 낳고 싶어 하는 인간 본연의 생명력으로 환기되며, 인간의 본능적인 성적 활동에 대한 예찬으로 나타난다. 이효석은 문예의 부흥은 곧 휴머니즘의 복귀이며, 이는 인간의 정신적 부활과 육체적 해방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런 그에게 육체문학은 육체적 해방을 위한 것이며 다시 자유와 개성과 참된 인간성의 해방으로 환유되는 기호이다[19].

문예부흥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헬레니즘 환원 운동, 휴머니즘 복귀운동이었다. 종교적 압박에서 벗어나 인간적 정신을 부활시키고 자유와 개성의 자각을 촉진시키려고 함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육체적 해방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 중요하고 일의적인 전제 위에 설 때에 비로소 참된 인간성의 해방이 있는 것이다. 문예부흥 운동의 구체적 표현이 때로는 현세적 행복 추구에 기울고 혹은 관능적 향락의 방향으로 흐른

것은 중세적 이념의 반동으로서 당연한 현현이었다 [2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돼지의 교미로 상징되는 인간의 애욕은 단순한 인간의 성적 욕망이 아니다. 식이가 추근하게 떠올리는 애욕은 곧 인간의 육체적 해방을 통하여 참된 인간성을 해방하고자 하는 작가의 주체적 의식이며, 문예부흥운동의 일환인 것이다.

「돈(豚)」에 나타나는 돼지에 대한 상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암돼지의 씨집이 끝나고 난 뒤 종묘장을 나온 식이는 분이의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분이를 찾아 떠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순간 돼지는 식이가 분이를 찾아갈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 길로 아무 데로나 달아날까.’

장에 가서 돼지를 팔면 노자가 되겠지. 차 타고 노자 자라는 곳까지 달아나면 그 곳에 분이가 있지 않을까. 어디서 들었는지 공장에 들어가기가 분이의 소원이라더니 그 곳에서 여직공 노릇하는 분이와 만나 나도 노동자가 되어 같이 살면 오죽 재미있을까. 공장에서 버는 돈을 달마다 고향에 부치면 아버지도 더 고생하실 것 없겠지. 돼지를 방에서 기르지 않아도 좋고 세금 못 냈다고 면소 서기들한테 밥술을 빼앗길 염려도 없을 테지. 농사같이 초라한 업이 세상에 또 있을까.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못 살기는 일반이니…… 분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돼지를 팔면 얼마를 받을까. 이 돼지. 암 돼지, 양돼지……[18].

소설의 전반부까지 식이는 먹고 살 양식과 내야 할 세금 걱정을 하며 농사를 짓고 돼지를 키우는 부지런한 농군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그렇기에 돼지는 식이의 삶을 지탱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소설의 후반부에서 식이는 자신의 지위에서 탈주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 그리고 그 순간 돼지는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 아닌, 식이의 고단한 삶을 상징하는 매개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주는 돼지의 상징에서 극대화된다. ‘돼지를 방에서 기르는 식이의 행동’이 소설의 전반부에서는 돼지의 소중함을 의미하다, 후반부

에서는 돼지와 같은 공간을 점유하는 식이의 곤궁한 삶을 조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버지의 고생’과 ‘빼앗긴 밥술’과 더불어 농군인 식이가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감은 식이로 하여금 탈주를 욕망하게 한다. 이러한 욕망은 더 이상 아버지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희망이고, 더 이상 수탈당하고 싶지 않다는 욕구이다. 즉, 농군인 식이에게 공장의 노동자가 되는 일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편인 것이다. 그리고 식이에게 이러한 인간다운 삶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돼지’이다. 돼지를 팔아야만 노자를 마련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돼지’는 식이에게 고단한 삶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런 희망도 잠시뿐이다. 분이와 함께하는 삶, 안정감 있는 삶을 상상하느라 한 눈을 팔며 철도 건널목을 건너던 식이는 기차에 치일 뻔 한다. 철로 망군이 구해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식이 역시 목숨을 잃을 뻔 했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식이는 애지중지 키우던 돼지를 잃는다. 그리고 그 순간 돼지는 모든 희망의 상실을 상징하는 기표로 작용한다.

“아, 돼지!” …(중략)…

“돼지는 어찌 됐단 말ियो?”

“어젯밤 꿈 잘 꾸었지. 네 몸 안 친 것이 다행이다.” …(중략)…

“아, 돼지가 치였다니…… 두 번 종묘장에 가서 씨를 받은 내 돼지 암돼지 양돼지……” …(중략)…

“한방에서 잠재우고, 한 그릇에 물 먹여서 기른 돼지, 불쌍한 돼지…….”

정신이 아찔하고 일신이 허전하여서 식이는 금시에 그 자리에 폭 쓰러질 것 같았다[18].

이전까지의 돼지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상징으로 기능했다. 생존에 꼭 필요한 자본, 육체 해방을 위한 애욕, 인간적인 삶에 대한 희망 등은 모두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욕망하는 것들이다. 즉, 소설에서 돼지로 상징되는 것들은 모두 삶을 위해 존재하는 필수적

요소인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돼지의 죽음으로 인해 상실되고 만다. 돼지가 기차에 치여 죽음으로써, 식이는 자본도, 사랑도, 희망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설의 결말은 희망을 찾기 어려운 당대 고달픈 농민들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상으로 「돈(豚)」에 나타나는 돼지의 상징을 분석한 결과, 당대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며,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작가의식을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동물상징은 식민지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효석이 당대 현실을 인식하고 표현하기 위한 자신만의 소설 작법이며, 작가의식의 표출 수단이었던 셈이다.

IV. 나오며

이 글에서는 동물상징이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주요 소설 작법이라는 관점 아래, 이효석 소설 「돈(豚)」에 나타나는 ‘돼지’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효석은 문학이 사회적 현실과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는 창작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최소한의 낭만과 최대한도의 리얼을 사용하여 진실을 그려낼 때 문학의 참된 길이 있다고 믿었던 작가였다. 이러한 그의 문학관은 일제의 탄압으로 인하여 저항적 문학 활동이 어렵던 당시 시대와 마주하며, ‘동물상징’이라는 이효석만의 독특한 소설 작법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이효석의 소설작법은 「돈(豚)」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돈(豚)」에서 ‘돼지’는 주인공 식이에 준하는 주요 소재로서, 식이의 처지를 드러내거나 욕망을 발현하는 상징물로 기능한다.

소설 속의 돼지는 기승전결에 따라 4개의 상징 매개물로 변주된다. 첫째, 식민지 현실 아래서 양식을 구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본, 둘째, 인간 본연의 생명력 찬양을 통한 인간성 해방, 셋째, 최소한의 안정감이 보장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망, 넷째, 욕망하는 모든 것들의 상실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은 소설의 구조 속에서 식이의 처지와 조응하고, 그것은 다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로 환원된다. 이러한 인간과 동물의 대응관계는 돼지에 대한 상

징이 곧 현실을 드러내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즉, 소설 속의 돼지는 식민지 현실 속에서의 농민의 삶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효석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그려내는 주요 키워드인 것이다.

이처럼 이효석의 소설에 나타나는 동물상징은 다양한 의미를 표상함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명징하게 드러내고, 또 서사를 직조하는 주요 수단으로써 독특한 심미성을 확보하는 이효석만의 소설기법이다. 이효석의 동물상징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식의 발현이자 독특한 소설 작법이라 이해할 때, 돼지를 잃어버린 식이의 모습은 자본을 수탈당하고, 생명력을 발현할 기회를 빼앗겼으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희망마저 제거 당한 당대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즉 이효석은 동물상징을 이용하여 리얼과 낭만의 중간 지점에서 당대 식민지 민중들이 처한 비극적 현실을 효과적으로 그려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효석의 소설 「돈(豚)」은 그의 표현대로 문학의 참된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한 진실성 있는 작품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이효석의 단편소설 「돈(豚)」을 재평가해야 할 당위를 제공한다. 「돈(豚)」을 그저 에로티시즘적 성격을 보이는 순수문학의 출발점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 지식인으로서의 이효석과 자연주의 예술가로서의 이효석이 충돌하는 지점의 내면의 의식이 담겨있는 작품으로 읽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작품은 식민지시대 농민의 현실을 그려내고자 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감과 자유와 개성, 그리고 참된 인간성 해방을 부르짖는 작가 의식이 양가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진정한 리얼과 낭만 사이의 소설로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이효석 단편소설 「돈(豚)」에 나타나는 동물상징을 분석하여, 작품에 발현되고 있는 작가의식을 읽어내고, 해당 작품의 가치를 재평가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물상징이 나타나는 이효석의 작품 중 유의미하다 판단되는 한 작품밖에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이효석의 다른 작품에 나타나는 동물상징을 분석함으로써 이효석 문학의 가치를 재평가 한다면, 이효석 문학사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참 고 문 헌

[1] E. Cassirer, 김병옥 역, *인간론*, 대양서적, 1975.
 [2] 정문권,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동물 상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7.
 [3] 이재선, “동물의 문학적 상징: 문학의 동물관,” *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pp.489-526, 2009.
 [4] 이수정, “현대소설과 동물의 주제학,”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6권, 제4호, pp.55-81, 2002.
 [5] 김치수, *문학과 비평*, 문학과지성사, 1984.
 [6] 정현숙, “이효석의 소설론과 그 실제,” *어문연구* 제81권, pp.237-256, 2014.
 [7] 박재익, “이효석 소설에서의 ‘애욕’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3호, pp.23-48, 2015.
 [8]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9] 폴 리콕르, 윤철호 역,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 언어, 행동 그리고 해석에 관한 논고*, 서광사, 2003.
 [10] 조명기, “이효석의 <산>과 <들>에 나타난 자연의 성격,” *한국문학논총*, 제37권, pp.129-148, 2004.
 [11] 박재익, “이효석 소설에서의 애욕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3호, pp.23-48, 2015.
 [12] 이효석, “낭만·리얼 중간의 길,” *조선일보*, 1934.1.13.
 [13]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14] 이효석, “현대적 단편소설의 상모- 진실의 탐구와 시의 경지,” *조선일보*, 1938.4.7.-1938.4.9.
 [15] 이효석, “화분을 쓰고-창작여담,” *인문평론*, 1939.12.
 [16] 조성제, *무속에 살고 있는 우리 상고사*, 민속원, 2005.
 [17]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18] 이효석, <돈(豚)>, *이효석 단편전집1*, 가람기획, pp.348-355, 2006.
 [19] 김건형, “동양주의 담론에 대응하는 이효석의 서구 표상과 덴디로서의 조선문학,” *구보학보*, 제14집, pp.97-138, 2016.

[20] 이효석, “서구정신과 동방정취-육체문학의 전통에 대하여,” *조선일보*, 1938.7.31.-1938.8.2.

저 자 소 개

정 문 권(Moun-Kwon Jeong)

정회원



- 1985년 2월 : 배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사)
- 1988년 2월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석사)
- 1995년 2월 :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관심분야> : 현대문학, 동물상징, 휴머니즘소설